서효인의 '소설처럼'

진짜 게임에 들어선 여성들

-박서련 소설집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 아무래도 게임에 소질이 없다. 어릴 적 오락실이 유행하고 가정용 게임기가 보급되면서 게임은 또래가 어울리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었는데, 그걸 잘하지 못하니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저 그런 학교 성적에 축구 같은 운동에도 젬병인 친구여도 스트리트파이터를 잘하면 크게 대우받았다. 게임기가 있는 친구 집에 삼삼오오 모여 조이스틱을 쥐고 있으면, 슈퍼 마리오를 잘하는 친구가 그중 슈퍼 영웅이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스타크래프트가 공전의 히트였다. 현란하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두드리며 적군을 무찌르는 친구는 스타가 되었다.

근래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기고 PC방에서는 여러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즐기는 콘솔 게임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문화 사업에서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게임 업체다. 21세기 들어 창업하여 부를 이룬 사업자는 거의 게임 업계의 큰손들이다. 스타 프로게이머는 어지간한 스포츠 스타의 연봉과 비교할 수 없는 돈을 번다. 게임 중독과 모바일 게임의 과금 체계 등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역시 지금은 아무려나 게임의 시대가 맞는 듯하다. 나처럼 게임에 문외한인 사람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게임 문화와 게임 사업이 지금의 발전상을 이루기까지 게임의 주인공은 주로 남자였다. 오락실은 소년들의 무대였으며 PC방은 남자들끼리 가는 놀이터로 꼽힌다. 거기에 여성이 자리는 없거나 아주 작다. 많은 게임의 지나친 남성향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와 일부 게임 유저의 여성혐오적 발화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박서련 소설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에서 그 엄마의 아들인 지승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저학년 시절 따돌림 폭력을 당한 적 있다. 겨우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할 무렵, 형편없는 게임 실력이 다시 친구들의 놀림거리로 부상한다.

엄마는 그저 두고 볼 수 없어 게임 과외를 시키고자 한다. 처음 온 과외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남자애들은 서열이 중요한 거 아시죠? 요새 애들은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게임 실력이 서열을 결정하죠." 지승은 어쩌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가 아닌, 친구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게임을 잘하려는 게 아닐까. 지승 엄마의 생각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그녀는 지승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게임 실력에도 그럴 참이다. 그리하여 과외를 진행하던 중 뜻밖의 재능을 발견한다. 그녀의 게임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이다. 보통은커녕 다른 남자애들의 판을 찢어버릴 정도로 그녀는 게임에 뛰어났다.

그녀는 아들 대신 게임에 뛰어든다. 아들은 채팅에서 지금까지도 멸칭으로 불렸다. 게임을 잘못하는 유저에게는 어째서인지 '여자 이름'을 붙여 조롱했다. '엄마'라는 단어는 또 어째서인지 금칙어였다. 아들 또래 아이들은 어째서인지 '너희 엄마'라는 뜻의 신조어를 욕설 대신 썼다. 그녀는 모든 게임을 멋지게 이기지만, 어째서인지 거대한 게임의 패자인 것만 같다. 아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온라인 세계는 오프라인 세계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여성 혐오로 점철되었다. 그녀는 모성과 돌봄의 이름으로 아들이 그 세계에서나마 잘나가길 기원했다. 하지만 그녀가 목도한 건 금칙어가 된 '엄마'라는 단어와 그 단어를 욕설로 인식하여 클린 지수가 떨어지는 아들의 계정, 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아들 친구들의 채팅뿐이다.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에는 이처럼 여성 혐오와 가부장제에 맞닥뜨리는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최선을 다해 그 장벽을 돌아갈 방법을 찾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어떤 인물은 그 벽을 부숴 버리려고 한다. 그러다 자신이 사실은 게임에 놀라운 소질이 있음을 깨닫기도 한다. 남편은 게임 회사에 다니고 아들은 PC방에 다니지만 자신은 집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느라 쪼그라들어 알 수 없었던 재능이다. 박서련의 소설은 그 재능을, 진짜 자기 모습을, 결연하고 열심히 찾는 여성들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이 땅의 거의 모든 여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인〉

社說

광주시장 경선 '정책 경쟁' 끝까지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TV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돼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진다. 두 후보는 그제와 어제 광주 KBS·KBC 주관 토론회에 이어 오늘은 광주 MBC 토론회에 참석해 서로의 공약·자질 등을 검증하게 된다. 이어 23~26일 나흘간 시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두 후보는 그제 토론회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 무등산 접근성 개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로의 정책을 검증했다. 복합 쇼핑몰 유치에는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친환경 차 운행과 케이블카 설치 등을 통한 무등산 접근성 개선에도 환경 보존을 전제로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각자 자신이 주도해 성과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여 왔다. 따라서 이번 경선도 박빙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토론회에서 양 후보의 기선 제압을 위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다행스럽게 상대방을 흠집 내려는 네거티브 공세는 자제하고 정책 경쟁에 치중하는 분위기였다.

두 후보는 이달 초부터 매주 두 차례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 대결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민선 7기 광주 경제의 엔진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AI 산업에 더해 이 후보는 '초광역 그린(Green)-스마트(Smart)-펀(Fun) 시티' 조성을, 강 후보는 차세대 배터리와 자율 주행 차,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광주 신경제 지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를 경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두 후보의 정책 경쟁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검수완박' 속도전 나선 민주, 국민 설득부터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데 이어 일부 법사위원들을 교체했다. 기존 법사위원인 소병철·김종민 의원 대신 민형배·김진표 의원을 투입했고 송기헌 의원을 법안 심사 1소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완박' 추진에 불안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체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로 예정된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보류한 것도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일명 '살라미 전략'으로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시도할 계획인데 이때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속도전은 자칫 입법 독주로 비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는 이유다. 박 위원장은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의당은 어제 입법 후 1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검수완박' 1년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민주당에 우호적이던 단체들까지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처럼 속전속결로 입법을 강행할 경우 검찰 개혁의 본질보다는 정치 논리로 비칠 수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설득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갑작스러운 눈 외상, 이렇게 대처하세요

강석준
보라안과병원 원장

사건 사고는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한다. 눈과 관련된 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다. 음식점을 찾던 사람이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발견하고 무심코 손을 뻗어 가리키다 실수로 앞을 지나가던 행인의 눈을 찌르는 상해를 입혔고 다친 사람은 각막에 찰과상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안(眼) 외상은 이처럼 손가락이나 손톱에 의한 상처, 종이·연필·볼펜·젓가락·포크·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집이 많아지면서 강아지·고양이 등의 발톱에 눈동자가 긁히는 경우도 있다.

안과 진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 중 간혹 눈의 외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진료가 늦어졌거나, 순간의 사고로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병이 악화돼 병원을 방문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생활 속에서 눈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연필이나 볼펜, 빨대와 같이 뾰쪽한 물건에 찔렸거나 관통상으로 각막에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눈에 관통한 물체가 있다면 빼지 말고 그대로 둔 채로 눈을 압박하지 않게 종이컵 등으로 감싸 병원으로 가야 한다.

탁자·침대 등에서 떨어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눈을 심하게 맞은 경우라면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고, 얼음찜질 등의 자가 처치 또한 일체 하지 말고 즉시 안과를 찾아가야 한다. 이 경우에 눈으로 식별되는 외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 제초 도중 눈에 풀이나 돌이 들어가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이물질이 튀어 눈에 들어갔다면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리 식염수로 눈을 씻어 내는 것이 좋다. 생리 식염수를 구할 수 없다면 깨끗한 물을 눈에 흘리듯 가볍게 씻어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물감이 있더라도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눈을 비벼서는 안 된다.

손 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독제가 눈에 튀어 손상을 입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손 소독제 외에도 최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테리어 도구와 관련한 안과 사고도 덩달아 늘어났다. 사고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순간 접착제로, 어린이의 경우 순간 접착제를 열 때, 노령의 경우 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락스·세제 등이 눈이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생리 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눈에 흘리듯 충분히 장시간 동안 세척하고 특히 염기성 물질은 침투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히 세척을 한 후 즉시 안과에 가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났거나 스포츠 활동 도중 눈 주위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상처에 조각이나 이물이 있는 경우 애써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안과를 찾아야 한다. 눈 주위 피부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경우 지혈을 위해 수건 등으로 세게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안구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눈 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곤 한다. 외상에 의한 신체 손상은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지만 눈의 경우 각막 상피가 벗겨지는 각막 찰과상,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각막염과 같이 가벼운 것부터 실명에 이르거나 안구를 적출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작은 안 외상이더라도 눈물 흘림, 충혈, 통증 등이 동반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안과 진료를 받아 보길 바란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대처 방안을 기억하고 응급처치 후 안과를 찾아가길 권한다.

기 고

반도체 패권 전쟁, 기술이 국력이다

정진
조선대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물리학과 교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시작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시 대(對)러시아 제재 방안으로 반도체 등 첨단 제품과 미국산 기술로 전 세계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거나 미국산 장비로 생산된 제품의 러시아 수출길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아침에 막히게 되었다. 이는 '첨단 제품 수출 통제가 다른 국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고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 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현대 산업 모든 곳에 쓰이는 반도체가 21세기 위협적인 군사 무기가 되었다. 기술과 제품이 무기화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반도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한 각국은 막대한 투자를 하여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 산업에 56조 원을 투입하고, IBM·인텔·MS 등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업체)에 22조 원을 투입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유럽은 2030년까지 180조 원을 투입하여 전 세계의 20%의 점유율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만은 미국과 일본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및 설비 투자를 올해만 3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반도체 설비 투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022년 한 해 230조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대비 24%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17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로 반도체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에 들어갔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류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과 공간에 최첨단 반도체가 들어간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웨어러블의 혈압, 심전도, 혈중산소 포화도, 체온 측정과 차량용 반도체를 통한 자율형 운전 및 안전 시스템, 반도체를 이용한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구축, 메타 VR(가상현실) 등 생활 곳곳에 이미 최첨단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생각하게 한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국가였다면, 러시아 침공에 대해 서방이 경제 제재가 아니라 군사적 대응을 불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대만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건재한 이유는 TSMC의 존재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TSMC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매출 수출의 60% 이상이 미국에서 이뤄진다. 미국과 군사 동맹보다 더 강력한 방패막을 갖는 기술 동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 교육과 인재, 국가 안보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대한민국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 패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열린 백악관 회의 때 삼성전자를 참여하게 하여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였던 것은 기술 패권이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과학기술 패권국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국가·기업·학교 모두가 더욱더 기술 패권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하여 대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無等鼓

욜라보카플로드

인구 32만 명의 나라 아이슬란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여행과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오로라와 빙하를 생각할 터다. 음악을 사랑하는 이라면 첫 출연한 영화 '어둠 속의 댄서'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싱어송라이터 비요크나 록 그룹 시규어 로스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나 역시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아이슬란드에 대해 최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장강명의 에세이를 읽다 발견한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모습은 '독서'와 관련이 있었다. 책에서 처음 접한 단어 '욜라보카플로드(jolabokaflo ð)'는 아이슬란드어로 '크리스마스 책 홍수'라는 뜻이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책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어 그 시즌마다 새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어떤 책을 선물할지를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인다고 한다.

또 TV 독서 프로그램이 황금 시간대에 편성돼 있고, 1년 내내 다양한 책 관련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한다. 한 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 사람이 1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자신 만의 책을 갖고 있다'는 멋진 말이 전해오는 나라이기도 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진행한 '2021 사회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은 1년 동안 책을 읽지 않았다. 한 권이라도 책을 읽은 사람은 45.5%에 그쳤고 국민 1인당 독서 권수는 15권이었다. 이런 통계를 접하면, 장 작가가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판타지 소설처럼 들린다'고 쓴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오는 23일은 1995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세계 책의 날'은 1926년부터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책과 장미를 선물(상트 호르디)하는 관례에서 시작됐다. 또 1616년 세계적인 문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책 한 권 선물하기 좋은 날이다. 꼭 '책의 날'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담은 책을 선물하는 게 '일상'이 된다면 어떨까. 읽고 좋았던 '그 책'을 몇 권 더 구입해야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